

## 타이거즈맨 한 자리 모인다

11월 4일 'OB 모임' ... 김응용 전 감독 등 50~60명 KIA V11 조인

'국보 투수' 선동열 감독이 톱크 게 쓴다. 프로야구 무대를 호령했던 타이거즈 출신 스타들이 내달 4일 광주에 집결한다. 지난 2007년 처음 결성된 이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타이거즈 OB 모임을 위해서다. 이번 모임의 호스트 역할은 선동열 KIA 신임 감독이 맡는다. OB 모임 회장인 김봉연 극동대학교 교수는 "선동열 감독이 고향팀 감독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프로야구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타이거즈맨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프로야구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김응용 감독님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오

전 골프 라운딩에만 6개 팀이 참가할 예정으로 50~60명의 타이거즈맨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년 모임을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9번의 우승을 일궈냈던 김응용 전감독과 최윤범·이상국 전 단장까지 자리를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모임이 될 전망이다. V10에 빛나는 타이거즈의 명성답게 전현직 프로·아마 감독들도 총출동한다. 타이거즈 신임 사령탑에 오를 선동열 감독을 중심으로 OB 모임의 주요 멤버인 양승호 롯데 감독도 친정무대를 찾는다. 양승호 감독은 "아쉽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속에 포스트시즌을 잘

치러냈다"며 "선배들과 만남을 갖기 위해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한 전 KIA 감독과 이순철 KIA 수석코치도 OB 모임의 주축. 한화의 한대화 감독은 내달 1일 팀의 마무리 훈련을 위해 출국을 하면서 아쉽게 이번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원광대를 지휘하고 있는 김준환 감독과 이달 초 홍익대 감독으로 부임한 장재근 감독도 OB 모임의 일원으로 광주행에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골프 실력을 겨룬 뒤 모임의 굵은일을 도맡고 있는 '마당쇠' 송유석 총무의 가게에서 저녁 만찬을 즐길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008년 광주 상무지구 중국 음식점 하이원에서 열린 OB 모임에서 타이거즈 출신 스타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KIA 타이거즈, 팬과 함께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30일 무등야구장

KIA 타이거즈가 팬들과 함께 하는 '호랑이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KIA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선수단 전원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11시즌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IA 선수단 전원이 참가해 팬들과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예정이다. 선수들의 숨겨진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직선행사와 공식행사, 분행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직선행사에서는 팬사인회, 야구 클리닉 등이 열리고, 공식행사에서는 개회식과 인사말, 신인 소개, 안치홍 안타 및 도루 적립금 전달식 등이 열린다. 분행사에서는 치어리더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신임 선동열 감독도 팬사인회에

참가해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스포츠타일이 주어지며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를 비롯해 우승자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증정된다. 행사 참가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참석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며, 팝업창은 26일 오전 11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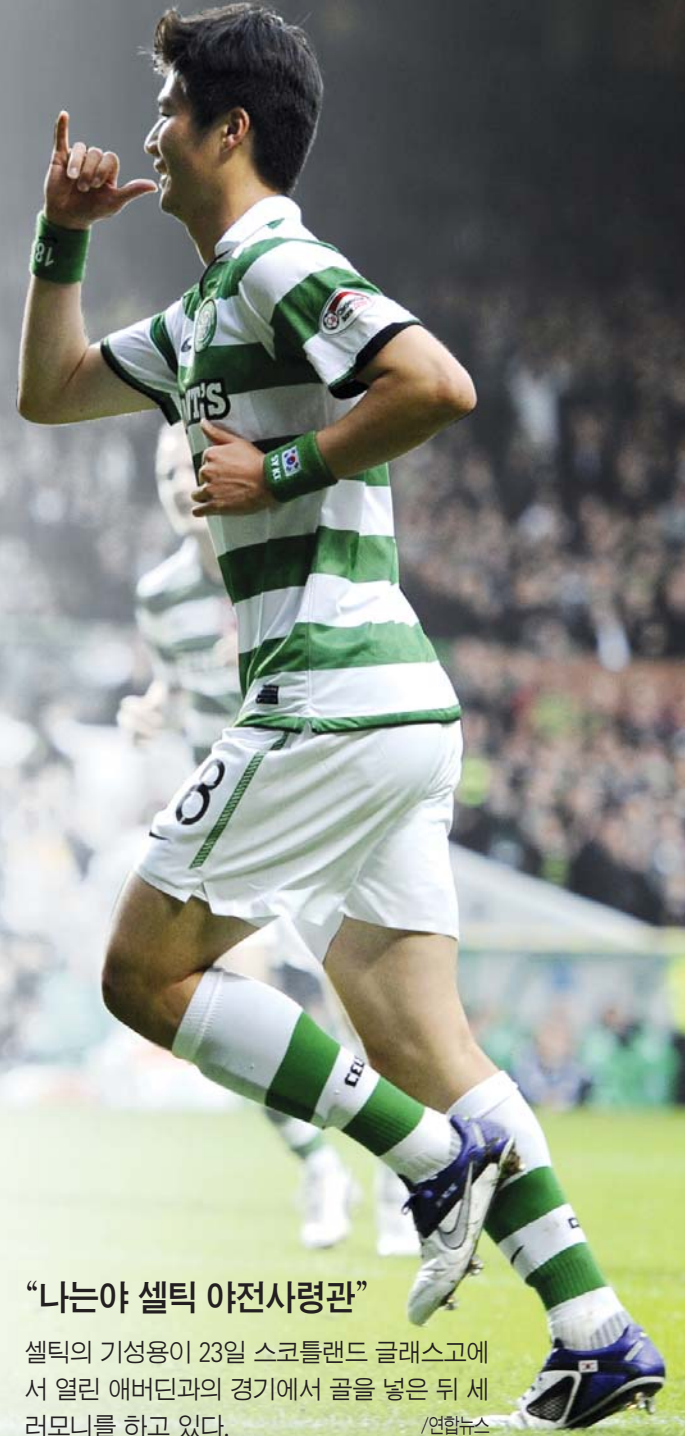
## 기성용 폭풍 활약

애버딘전 1골·1도움 ... 셀틱 2-1 승리 이끌어

올시즌 벌써 5골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2·셀틱)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셀틱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은 2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11-2012시즌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애버딘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17분 선제골을 넣어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개리 후퍼의 패스를 이어받은 기성용은 오른쪽 측면에서 터뜨려 1-0을 만드는 득점을 기록했다. 9월29일 우디네세(이탈리아)와의 유

럽축구연맹(UEFA) 2011-2012시즌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약 20일 만에 나온 득점이다. 기성용은 이번 시즌 리그 경기에서 4골과 유로파리그 1골을 더해 모두 5차례 득점을 올렸다. 셀틱은 후반 14분에 애버딘의 라이언 잭에게 동점 골을 내줬으나 후반 27분에 기성용의 패스를 이어받은 찰리 멀그루가 오른쪽으로 결승점을 뽑아 2-1로 이겼다. 15일 킬마녹과의 경기에서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던 기성용은 어시스트 개수를 4개로 늘렸다. 7승1무3패(승점 22점)가 된 셀틱은 한 경기를 더 치른 마더웰(7승2무3패)에 이어 3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너는야 셀틱 야전사령관"

셀틱의 기성용이 2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애버딘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맨유 퍼거슨 "맨시티에 1-6 대패 내 축구인생 최악의 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와의 '맨체스터 데비'에서 대패를 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퍼거슨 감독은 24일(한국시간) 축구 전문사이트 ESPN스카넷과의 인터뷰에서 "최악의 날이었을 뿐 아니라 내 축구인생 최악의 결과"라며 "1-6이라는 스코어는 생각해보면 적도 없다"고 말했다. 퍼거슨 감독이 이끄는 맨유는 지난 23일 맨시티와의 정규리그 9라운드 홈 경

기에서 후반 2분 조너선 에반스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져 후반 막판 소나기골을 내주고 5골차 완패를 당했다. 맨유가 역대 홈 경기에서 당했던 최악의 패배는 1930-1931 시즌 1부리그에서 12연패를 당할 당시 허더스필드 타운에 0-6으로 졌던 것이다. 퍼거슨 감독은 "내년 1월쯤 팀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우리 팀은 보통 시즌의 중반 정도 됐을 때 손발이 제대로 맞아들어간다. 이번 패배를 통해 팀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한국시리즈 삼성 매티스·SK 고효준 '맞대결'

오늘 대구서 1차전

25일부터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승제)에서 명승부를 진두지휘할 류중일 삼성 감독과 이만수 SK 감독대행이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 출신으로 각각 야구 명문인 경북고(류 감독)와 대구상고(현 상원고·이 대행)를 나온 두 사람담은 삼성에서 10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교분을 나눈 선우배다. 치열한 승부와 함께 개인적인 인연이 겹쳐 더 큰 주목을 받는 양 감독은 서로 "존경하는 선우배"라고 치켜세우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자 약속했다.



24일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류중일 감독(오른쪽)과 SK 와이번스 이만수 감독대행이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 행사장인 대구시민체육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 빛을 갈을 기회가 와서 정말 고맙다"며 빼어난 말로 일전을 밝혔다. 고향에 금의환향한 이만수 대행도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다. 이 대행은 "가을 하면 SK이고 SK 하면 가을이다. 류 감독의 말마따나 멋있고 깨끗하고 재미있는 야구를 한국시리즈에서 펼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류 감독은 현역 때부터 좋아했던 후배다. 많은 분이 전설의 유격수 하민 김재박 전 감독을 생각하는 데 난 같은 팀에서 뛰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격수로는 류 감독이 대한민국 최고라 생각한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또 "야구 센스와 손놀림, 동물적인 감각에서는 류 감독의 수비가 최고였다. 감독으로서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초보'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고 극찬했다. 한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출신인 삼성 우완 더그 매티스와 SK의 왼손 투수 고효준이 25일 오후 6시부터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선발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 텍사스 반격 ... 월드시리즈 2승 2패

창단 50년 만에 첫 정상을 노리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포수 마이크 나폴리의 쾌기 홈런과 선발 데릭 홀랜드의 역투를 앞세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꺾고 월드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다. 텍사스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레인저스 볼파크에

서 열린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나폴리의 3점 홈런과 선발투수 홀랜드의 눈부신 피칭에 힘입어 세인트루이스를 4-0으로 이겼다. 전날 첫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강타자 엘버트 푸홀스에게 3연타석 홈런을 맞아 패하면서 1승2패로 물렸던 텍사스는 이날 승리로 다시 2승2

패로 균형을 맞췄다. 이날 포수 마스크를 쓴 나폴리는 6회말 연속 볼넷으로 얻은 1사 1, 2루 기회에서 에드윈 잭슨의 초구 높은 직구를 받아쳐 왼쪽 펜스를 넘기는 큼직한 홈런을 터뜨렸다. 전날의 실수를 씻는 '속피포'가 터지면서 텍사스는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연합뉴스

###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총 17만원 ⇒ 12만원
- ▶ 만도정품네비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57만원 ⇒ 45만원
- ▶ 아이나비 2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1만원 ⇒ 49만원
- ▶ 아이나비 3D 매립+후방카메라+사크안테나+마감재 65만원 ⇒ 53만원
- ▶ 트립컴 매립자랑은 상담후결정

###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사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2채널 8기가 35만원 ⇒ 30만원

**아이나비 클리어 Real HD 블랙박스**  
 ▶ 1채널 4기가 19만원 ⇒ 16만원  
 ▶ 2채널 8기가 38만원 ⇒ 33만원  
 ▶ Real HD 1채널 8기가 28만원 ⇒ 22만원  
 ▶ 파워세이프 별도 2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 1채널=전방카메라 ▶ 2채널=전방+후방카메라

▶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부터  
 ▶ 사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부터

###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참고** 추가부품(음선)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2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770B 40만원
- ▶ E7 37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Z620 10~14만원
- ▶ ET 17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일**  
 - 루마넌팅, 3M코팅, 모비스스텐딩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업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퀴방향,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액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안거리(20번길)  
 임동오거리 | 신안거리 | 허남거리